

TIPA, 청렴 및 반부패 활동 강화 나선다

- 5대 추진전략, 15개 추진과제를 담은 2022년 윤리경영 추진계획 수립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원장 이재홍, 이하 TIPA)은 기관 청렴문화 확산과 윤리경영 정착을 위해 청렴 및 반부패 활동에 중점을 둔 윤리경영 추진 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TIPA의 윤리경영 추진계획은 ‘부패 유발요인 선제적 대응’ 및 ‘부패 방지경영시스템 운영 공고화’ 등 5개의 추진전략과 15개의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구체적인 전략 이행을 위해 윤리경영 실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내외부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TIPA는 다음달 정부의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을 앞두고 내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였다. TIPA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지침은 4월 19일 제정 및 배포되었으며, 이 지침은 이해충돌방지 및 신고를 위한 세부 절차와 징계양정기준, 이해충돌방지 담당관 지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TIPA는 지난 2017년 국내 R&D 전문기관으로는 최초로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국제 표준인 ISO 37001 인증을 획득한 데 이어, 지난 해 12월에는 동 인증을 지속 유지하여 윤리경영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TIPA 이재홍 원장은 “올해 반부패 활동 중심의 윤리경영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취약분야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제도나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다”라며, “앞으로도 공공기관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2년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TIPA) 윤리경영 추진목표 및 전략>

